

다시, 주 안님 안에 거하기

요한복음 15장 1-5절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꿈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세록 장로님을 통해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4.0까지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작해야 2.0의 시력 밖에는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좋은 시력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넓은 초원과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 [목회와 신학] 2010년 12월 25일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믿음의 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막힌 담을 헤어 버립니다. 믿음은 현재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성령이 같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나라. 질서가 생겨나라. 도움이 오라고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시리즈의 소주제가 될 수도 있는 ‘바라봄의 원리’에 대하여 몇 주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뿐 만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 . .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로 그리고 기획목사로 사역을 하던 때, 기획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를 도와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동료들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함께 꿈을 꾸던 사람들인데, 때가 되니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때에는 ‘이 사람들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과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만나교회의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IMF를 지나야 했던 때 100억이 넘는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나교회가 부도가 났다더라’, 혹은 ‘천주교회에 팔렸다더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죠. 참 슬픈 일이지만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는 곳도 교회고, 교회가 잘 되도 배가 아파하는 곳이 다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만나교회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을 강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금을 다시 찾았지만, 그 이후에 은행에 요청을 해서 현금을 계수하고는 은행직원들이 가져갔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은행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현금을 모두 가져간다는 악소문도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과 기획목사를 하던 때는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한국 교회에 부자 세습에 대한 문제로 떠들썩하던 시기였기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만나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언제 개척을 할까, 아니면 대학교의 교수로 갈까하는 마음이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을 내려오며 하나님께 다짐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던지셨던 물음입니다. “너에게 만나교회는 뭐니?”

제 마음에 대답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만나교인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답이 저의 분명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닥치는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저와 함께 사역을 하던 몇몇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 교재와 프로그램 등이 사실은 그 때 기초를 잡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제가 몇 번을 인용한 적이 있지만, 또 들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함께 사역을 하던 멤버들이 밤샘을 할 때면 해장국 집을 자주 들렸습니다. 감자탕을 주문하고 먹으려 할 때면 수의학과 출신인 한 전도사님이 전골에 담긴 뼈를 보며 이 뼈가 몇 번 뼈인지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살 많이 붙은 뼈가 좋은 뼈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도사님에게는 뼈의 모양이 보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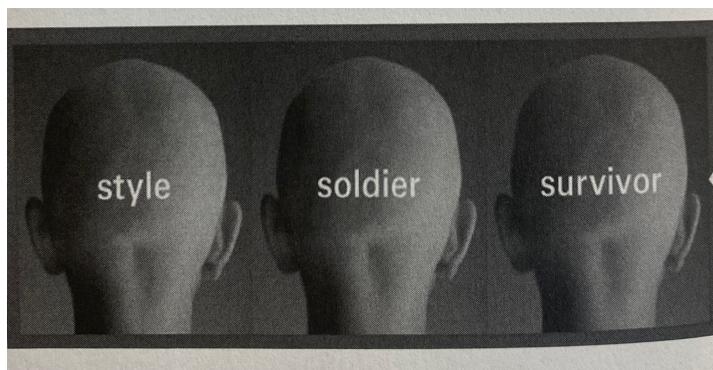
우리 속에 어떤 원리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최용준 교수가 쓴 [성경적 세계관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영국 런던의 히스로(Heathrow) 공항에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았다. “How the world sees you depends on how you see the world”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바로 이것이 세계관적 광고다.

릭 워렌(Rick Warren, 1954~)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Purpose-Driven Lif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way you see your life shapes your life”(당신이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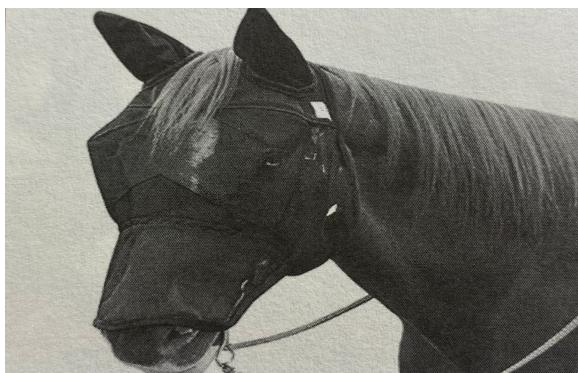
히스로 공항의 광고는 이런 그림도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사람의 머리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군인(soldier)으로 이해하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생존자(survivor)로 보기도 한다. 생존자로 본 사람은 그 사람을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은 이 사람을 스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최용준 교수, 「성경적 세계관 강의』, 24

2012년 9월 9일자 ‘오늘의 양식(Our Daily Bread)’을 읽으면 매우 통찰력 있는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다. 말의 눈이 덮이는 마스크를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말을 공격하는 파리로부터 말의 눈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해도 말이 앞을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이 마스크는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때 잘못된 세계관의 공격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오늘의 양식은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과 성경에 대한 진리 모두를 알게 된다(When we see the world through the filter of the world, we learn the truth about both).”



위의 두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보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6-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비전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비전의 근거 - 예수 안에 거하기

우리가 비전을 따라 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이 땅위에서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 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과는 달리 빈약한 삶을 살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삶의 근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므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교회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펠전 목사님의 그의 책 [구원의 은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청교도들은 “기댐”(recumbency)이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곤 했다. 어떤 것에 몸을 기댄다는 뜻이다. 당신의 온 몸을 그리스도께 기대라. 만세 반석 위에 온몸을 쭉 뻗고 드러눕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p.59)

여기서 기댄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이 기댐이 공허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지치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참아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진희 목사는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서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성공이냐 승리냐?

성공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비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보다 성공을 더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에게 더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나님도 그려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한다. 교회에서는 덕담을 할 때 성공하라고 하는 대신 승리하라고 한다. 성공보다 값진 것이 승리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한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 . .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느낌을 가져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더구나 농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기뻐하지만,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박대영 목사가 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멋진 글이 있습니다.

‘GOOD’(선한)라는 글자에서 ‘GOD’(하나님)을 빼면 ‘O’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O’에 ‘GOD’가 들어가면 ‘GOOD’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마른 가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햇빛과 비까지 동원하실 수 있는 농부 하나님의 경작하시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셨습니까?

수년 전입니다.

제가 한참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목사님의 영성에 영향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읽고 알았을 때였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하는 설교이기에 원고를 잘 준비하고 갔는데, 설교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의 원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때 제 마음속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원고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썼습니다. 목사가 되어 많은 설교를 해 보았지만 그 때처럼 강력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mission statement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응답의 열매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망하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만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아는 방법을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회 교인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환경과 변화에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들리는 신실하신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삶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나요?

스캇 솔즈의 책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 예수님께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흐뭇했던 순간 중 하나는 어느 토요일 저녁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일이다.

신랑의 동생인 신랑 들러리가 축하의 말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숟가락들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진동을 하고 모두의 눈이 앞으로 쏠린 가운데 동생의 말이 시작되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솔직히 말하는데, 저는 원래 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평생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죠. 지금도 저희는 여러 모로 다릅니다. 하지만 형이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예수님과 함께할수록 점점 형과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형이 예수님과 함께할수록 형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형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예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떠올라 나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신부와 함께 있으면 해도 신랑에게서 최상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해도 우리 안에서 최상의 모습이 나온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와 사이가 안 좋은 동생들’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풍성함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요? “I can do everything!”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은 “in Jesus Christ”를 빼 놓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에게는 소망이 더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계곡에 나 있는 다리를 함께 건너는 코끼리와 생쥐가 있었다. 생쥐는 코끼리의 등에 붙어서 다리를 건너간다. 다리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무사히 흔들리는 다리를 건넌 후 생쥐가 코끼리의 귀에 대고 이야기한다. “휴우! 우리가 함께 건너니까 다리가 정말 흔들거렸지 그렇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코끼리의 힘에 의지한 한 마리 쥐와 같이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다리의 흔들림이 자신의 무게나 힘 때문이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때로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착각을 가리켜 “백마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백마를 타고 가는 왕자를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치 백마가 자신을 위해 환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백마가 착각을 하는 순간, 환호에 답을 하기 위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앞발을 듦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환호하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며, 보다 심각한 일은 자신이 태우고 있는 왕자가 낙마를 하게 되고, 어쩌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음이, 우리의 교회가 있음이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왕자를 태우고 가는 백마의 사명은 고개 들지 않고 묵묵히 가야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늘 그분의 관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유를 그분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가꾸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가 되신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포도나무에 관한 한 농부가 전문가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한 한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굉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친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을 하고 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아동세례 선포식을 어른 예배시간에 거행합니다. 또한 거의 매달 새아기 축복 시간이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스마트 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누가 이 아이들의 부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를 위한 의식이 거행될 때만 열심히 사진을 찍으니 말입니다.

성탄 때가 되면 교회학교 아이들이 발표회를 가지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나와 발표를 하지만, 유독 우리 아이들만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리만치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을까 가슴을 졸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특별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띠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세요.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자를 것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만들어 쓰시든지. 우리를 깨끗케 하시려고 가지를 칠 때, 열매 맺는 우리들 삶에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쓰임 받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필요한 가지를 꺾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도리어 나뭇가지를 무성하게 만드는 일에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쳐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나의 삶에 닿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때로 가지가 잘리는 아픔을 경험해도 기쁨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삶에 주인이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들보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과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선하신 뜻을 두고 계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일이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잘못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때,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지요.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